

고려시대 절터에 남은 신성한 비자나무

✳	✳
지정번호	장흥-15-12-1-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지정년도	1982 행원리 188
관리기관	장흥 34° 42' 04.00" N
수령	630년 126° 54' 45.00" E
수고	15m
흉고둘레	4m

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심어진 보호수(장흥-15-12-1-1) 비자나무는 마을 뒤쪽 해발고도 120m의 산 비탈에서 동백나무 등의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다. 비자나무의 나이는 63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곧게 서고 있으나 높이 2m 정도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줄기가 갈라져 있다. 원줄기 중간과 밑쪽의 가지줄기는 늘어졌으므로 마치 우산을 펴 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산비탈인데, 적절히 네모난 돌을 쌓아 몇 겹의 단을 만들고 있다. 비자나무가 있는 곳은 초행일 경우 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식재 내역과 관련이 있다. 비자나무는 고려 성종 때의 백림사(또는 해원사)라는 절터에 심은 나무이다. 조선시대 초에 교리 김협이 입향하여 절을 신흥관서로 옮기게 하고, 김협의 13대 손인 김영씨가

‘만년수’라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비자나무 밑에 축대를 쌓고 군대를 세워 아침저녁으로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다는 전설도 있다. 또한 비자나무는 신령스러워 이 나무를 베는 자는 신벌을 받았다. 잘 알려진 신벌은 1948년의 일이다. 중년의 어느 주인이 땀감을 위하여 이 비자나무의 가지를 마구 찍어 내어 잘랐다. 그는 그후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였다. 또한 광산 김씨 문중에서는 이 비자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잘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정월대보름 날에 비자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비자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사찰 주변으로 보다 많은 비자나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비자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찰의 퇴락과 함께 하나둘 사라진 석조물들처럼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한 사유들로 베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